

국내 중국어교육 관련연구 동향분석: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이현아(李賢娥)*

김민채(金旼蔡)**

김영환(金英桓)***

논문 요약

본 연구는 과거의 연구 흐름분석을 통해 과거연구의 성과와 한계점을 파악하고 향후의 중국어교육 관련 연구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5년에서 2014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중국어교육 관련 연구 논문 217개를 선정하여 발행연도,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주제, 교수학습방법을 중심으로 동향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연도별 발행건수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점진적인 증가를 보이다가 2011년 논문 수가 급증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은 연령별 분류에서는 전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비율이 76.5%이었고 수준별 분류에서는 수준 구분 없이 수행한 연구 비율은 92.1%로, 학습자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의 수가 적었다. 셋째, 연구방법은 문헌연구(47%)와 양적연구(42.4%)의 비율이 높았다. 양적연구의 경우 자료 분석이 46%, 설문 조사 31%, 준실험 설계가 23%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연구방법과 연령별 학습자의 관계는 전체 학습자를 대상으로 문헌연구나 양적연구를 수행한 연구들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들의 경우에는 양적 연구를 연구방법으로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연구방법과 수준별 학습자의 관계는 수준 구분이 없는 학습자가 연구대상인 연구들은 주로 문헌연구와 양적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준별 학습자 중에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초급 학습자 대상의 연구는 양적연구에 의해 도출된 것이었다. 넷째, 국내 중국어교육 관련 연구의 연구주제는 제2언어로서의 습득 및 기능에 대한 것(61.7%)이 주를 이루었다. 그 다음으로 교육현황 및 정책이 12.9%, 중국어교육 현황연구가 11.1%, 평가가 2.8%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섯째, 국내 중국어교육 관련 연구에서 교수학습법을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27.2%로 교수법에 대한 연구가 23.4%, 학습법을 다룬 연구들은 3.8%이다. 결론적으로, 국내 중국어교육 관련 연구들은 교수학습법에 대한 연구 비율이 낮았으며 이 연구들 또한 교수자 중심의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러한 교수학습법의 동향은 연구대상의 동향과도 연결되는데, 연구대상인 학습자의 연령, 수준, 상황 등의

* 제1저자: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시간강사

**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공학전공

*** 교신저자: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특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학습자 전반에 대해 논의한 연구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중국어교육만의 학문으로서 완전한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 동향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교육 패러다임, 특히 스마트교육의 기본 취지를 중국어교육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중국어 교육, 중국어 교육연구, 연구동향, 교육연구 동향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국의 국력신장과 경제발전으로 인해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중국어 인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학습자 수의 증가로 인하여 중국어 교수자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였으며 중국어 교육을 주제로 학문적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의 양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들은 기존의 일반 언어학적 연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즉 언어학습의 교육적 패러다임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어교육에 대한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수법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실천적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이옥주, 정소영, 2008).

교수-학습방법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 가르쳐야 할 지식의 변화,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 등에 의하여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김상근, 신동윤, 2011). 기존의 언어학적 연구에서는 주로 어휘와 문법이 중요한 영역이었다. 하지만 제7차 외국어 교육과정에서 어휘와 문법적 요소가 축소되고,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학습활동이 강조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도 듣기, 말하기의 학습활동이 중요시되고 있다(조항근, 2011).

제2언어 교수방법론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전통적인 문법-번역식 교수법에 대한 비판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화두가 아니다. 최근에는 언어의 의사소통 기능과 사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제2언어 습득에 관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담화적 맥락이나 배경적 지식에 대한 이해는 새로운 언어적 요소의 습득에 상당한 도움을 주며 중국적 상황에서 중국인에게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상황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멀티미디어 교수매체의 활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이옥주, 2008).

또한 교육환경의 변화도 중국어교육에 영향을 주고 있다. 2000년 교육인적자원부는 ICT 활용 교육지침을 발표하고 이러닝을 위한 기본 정보소양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는 스마트교육 추진전략 실행계획을 발표하여, 이러닝을 넘어 이제는 스마트교육으로까지 교육환경이 변화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교육환경은 전통적인 학습의 접근성과 편리성 등의 한계를

뛰어넘어 외국어를 학습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이와 관련한 중국어교육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어교육과 관련한 회고성 연구나 동향분석 연구의 수는 부족하다. 중국어교육과 관련된 논문들 중 회고적 성격을 포함하는 것으로는 박용진(2005), 유재원(2008), 정윤철(2012)의 연구이다. 박용진(2005)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교수법과 교육사라는 분류기준으로 제시하고 언어학과 언어교육과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중국어교육 연구 분야가 아직 중국어학의 틀에 머물러 있다고 논의하였다. 유재원(2008)의 연구는 중국어교육의 연구영역을 재설정 하였는데 교육학적 기준에 따라 상하범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정윤철(2012)의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일반 언어학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왔던 기존의 연구들이 언어교육학적 측면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연구들은 과거의 연구를 언어교육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중국어교육을 위한 연구영역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교육공학적인 접근으로서 교수-학습방법에 초점을 맞추었거나 스마트교육 시대를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을 고려하고, 언어교육학적 변화와 스마트교육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중국어교육 관련 연구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중국어교육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중국어교육 관련 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안하려고 한다. 본 연구의 분석연도 범위를 2005년부터 2014년까지로 선정하였는데, 시작연도가 되는 2005년은 박용진(2005)의 연구에서 1993년부터 2004년까지의 연구를 분석한 것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정윤철(2012)의 연구에서도 2012년까지의 중국어교육 관련 연구를 분석하였으나 연구영역에 초점을 맞춘 연구였으므로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된 연구동향 분석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분석범위의 마지막 연도인 2014년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공식적으로 타결된 해로서 중국어교육 관련 연구에도 양적·질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발행연도의 범위를 2005년부터 2014년까지로 확정하였다. 분석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에서 중국어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논문들로 선별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과 분석기준에 따라 발행연구, 연구대상, 연구방법, 학습내용, 교수-학습방법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분석한 결과들을 토대로 중국어교육 관련 연구들의 동향을 파악하였고 향후 연구방향을 탐색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국내 중국어교육의 역사 및 의의

한국은 중국어교육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다. 개화기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외국어에 능통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외국어 학교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외국어 학교는 한국 근대화 시기에 국가차원에서 여러 외국어를 국민들에게 접하게 하고, 그들의 문물을 접하고 문화를 수용하는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다는데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중국어교육은 한어학교에서 정식으로 이루어졌다. 중국어 교육기관인 관립한어학교는 본래 1892년 6월에 설립되어 1894년 잠시 문을 닫았다가, 1897년 5월에 재설립 되어 그 해 6월에는 중국인 胡文華를 교사로 초빙하여 정식으로 개교하였다. 시대적 조류와 국가적 필요에 의해 시작된 중국어교육은 1894년 갑오개혁 이후 더욱 정비되고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일본에 의해 교육 연한이 단축되고 교육정도가 낮아지게 되었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는 유일한 관립외국어 교육기관이었던 관립한성외국어학교마저도 당시 통감부의 일본어중시정책 및 일제의 조선 침략 강화의 명목으로 1911년 1월 11일 폐교되었다(소은희, 이주연, 2010). 그러나 70년대 중반부터 대학에 중문과, 중국어교육과 등이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80년대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학과 설립이 붐을 이루자 대학마다 중문과는 필수 설립 학과인 양 다투어 신설하였다(임동석, 2003).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한국의 중국어교육은 다시 새로운 발전을 맞이하게 되었다(맹주억, 2007). 이러한 시대변화에 따라 중국어 학습 인구도 급증하는 추세로 정규 교육 과정의 범위에서 볼 때 고등학교 교과과정 중 제2외국어에서 중국어의 비율은 1991년 3.1%, 2003년부터 17%로 상승했다. 이는 일본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2008년에는 26.3%까지 상승하였다(김선아, 2014). 2011년 한국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4년제 대학 총 213곳 중 약 140여 곳이 중문전공을 개설, 66%에 달하는 비율로 매년 중문과 졸업생은 대략 3000명이 넘는다는 통계를 내놓았다. 외국어학습 수요관점에서 볼 때 한국에서 오랜기간 동안 일본어가 2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다. 하지만 근래 중국어 전공 입학생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일본어전공 입학생수의 증가폭을 뛰어넘었다(전경, 2011).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었다.

중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처음으로 나타난 연구동향분석인 박용진의 논문은(2005) 다음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첫째 1993년에서 2004년까지 발표된 논문 115편 분석, 둘째 연구 내용별 동향에 대한 분석, 셋째 중국어교육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어교육 연구(형태 및 내용)에 대한 문제점 토론, 그리고 토론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어교육 연구논문 중 연구형태가 잘 이루어진 논문분석에 대한 것이었다. 논문들의 세부분야 분류기준은

연구형태 및 내용분석으로 다음 <표1>과 같았다.

<표 1> 박용진(2005)의 중국어교육 관련 연구 분류기준

제2언어 습득	대조	어휘, 어법, 어휘와 어법	교수법	접근방법, 교수설계	
	습득	어법	평가 및 교재	평가	
	연구방법			교재	교재현황, 교재편찬, 내용분석, 교재비교
	오류	문자, 쓰기, 어법, 어음, 어휘, 화용, 총체	언어 기능 교육	발음 교육, 어휘 교육, 문화 교육, 말하기·듣기 교육, 읽기·쓰기 교육, 어법 교육, 교육정책, 교육현황, 의식조사	
	중간언어				
학습전략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우선 중국어교육 분야의 연구는 양적으로 점점 증가하였음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각 영역별로 고른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중국어교육 분야가 아직 중국언어학의 틀에 머물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 논문에서 교육에 대한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형태로 타나내었다.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관찰, 기술과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연구논문에서 제시된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

2. 선행연구 분석

손성옥(2003)은 외국어 교육의 학문적 영역은 크게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등을 포함한 일반 언어학과 언어교육 및 교수법 언어 습득론을 포함한 언어교육학 분야, 그리고 담화분석 및 언어의 사회 문화적 기능 등을 포괄하는 응용 언어학 등 세 분야로 구분하였었다. 그 후 맹주익(2009)은 국내의 교육학적 분류 기준을 토대로 크게 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으로 이원화하여 제시하면서 중국어교육학의 내용을 더욱 포괄적이며 체계적으로 제시했다.1)2) ‘언어학적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교과내용학은 손성옥(2003)이 제시한 일반 언어학과 유사하다. 또 ‘방법적 원리와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교과교육학은 손성옥(2003)의 언어 교육학과 응용 언어학을 아우르고 있다. 또 교과교육학에서는 손성옥(2003)에서 언급되지 않은 중국어교육사, 교재론, 교육관

1) 교과내용학은 이론 기초로서 중국어에 대한 규칙을 파악하는 내용으로 중국어의 음운, 어휘, 문법 등 중국어의 각 언어요소에 대한 언어학적 이해를 말한다. 여기에서는 이론 언어학과는 구별이 되는 교육을 위한 본격적인 중국어 언어학과 음운, 어휘, 문법, 화용 등 제반 언어요소를 포함한다.
 2) 교과교육학은 교과의 내용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과정의 방법적 원리, 기술에 관한 것으로 중국어교육사(전통중국어교육), 중국어 교육과정, 교수법, 학습이론, 교재론, 교육관, 대조분석, 중간언어, 오류분석, 제2언어교육이론, 제2언어습득이론,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실험음성학, 응용언어학개론, 교육평가와 언어측정 등을 포함한다.

등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포괄범위가 더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정윤철, 2012).

이에 본 연구는 손성옥(2003)의 일반언어학과 맹주억(2009)의 교과내용학을 포괄하는 영역을 ‘일반 언어학적 연구’로 분류하고 손성옥(2003)의 언어 교육학, 응용 언어학과 맹주억(2009)의 교과교육학을 포괄하는 영역을 ‘언어 교육학적 연구’로 분류하여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또한 과거연구의 성과와 한계점을 파악하고자 ‘중국어교육의 회고적 연구’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하였다.

1) 일반 언어학적 연구

신승희(2004)의 연구를 기준으로 중국어교육 관련 연구의 분류체계가 점차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분류체계의 단계적 발전에 공헌한 연구들은 이영호(2005), 박용진(2005), 유재원(2007), 정윤철(2012)이 있었는데 이를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단계 일반 언어학적 연구와 언어 교육학적 연구의 경계제시, 2단계 일반 언어학적 연구의 상하개념 제시, 3단계 기존 연구분류의 세분화 및 층위화이다. 신승희(2004)는 1988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17년간의 전국소재 교육대학원의 중국어교육 연구의 석사학위 논문 502편을 분석하였다. 연구주제를 19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으나 분류체계에 있어 일반 언어학적 연구와 언어 교육학적 연구가 혼재되어 있어 분류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추후 연구에 있어 분류기준에 대한 정립의 필요성 제시로서 참조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단계적 발전을 분석해 보았다. 신승희(2004)의 연구에서 1단계적 발전을 보인 이영호(2005)는 어학, 언어, 교육의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그 중 어학과 언어영역을 언어학적 연구영역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류 방식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서 학문적 근거가 미흡하고 포괄적이기는 하나 언어학적 연구와 언어교육학적 연구의 경계를 제시했다는 점에 있어 1단계적 발전을 보이고 있다. 박용진(2005)은 1993년부터 2004년까지 중국어문학 학술지에서 발표된 중국어교육 논문 115편을 제2언어습득, 평가 및 교재, 교수법, 언어기능교육, 교육사 5가지로 분류하였다. 이영호(2005)가 어학과 언어라는 포괄적 기준을 제시한 것과 달리 박용진(2005)은 언어학적 개념으로서 제2언어 습득, 언어기능교육이라는 상위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위개념을 세분화하였다. 기존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참고 기준을 확대하였고 상하개념을 제시하여 층위성을 비교적 잘 표현했다는 점에서 2단계적 발전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유재원(2007)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유재원(2007)은 본질론, 방법론, 인식론의 하위범주를 교육 내용(언어학적 연구), 교육 방법(교육학적 연구), 학습자 중심(심리학적 연구)로 설정했다. 교육 내용(언어학적 연구)은 외국어교육의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설정하려고 시도했다는 점과 연구 영역의 하위 범주를 설정한 점에서 2단계의 상하개념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정윤철(2012)의 연구는

3단계적 발전으로 볼 수 있다.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제 1층위에서 거시적 연구와 미시적 연구로 구분 한 뒤 제 2층위, 제 3층위까지 세분화하여 분류기준의 층위성과 체계성을 갖추었다. 미시적 연구의 제 3층위에서 박용진(2005)이 제시한 언어기능교육의 하위영역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통번역'이 추가되었다. 일반적으로 언어기능은 박용진(2005)과 같이 위의 네 가지를 일컫는데 종합적 언어기능이라는 점에서 '통번역'을 언어기능교육의 하위영역으로 분류한 것은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다.

2) 언어 교육학적 연구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어교육의 양적, 질적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중국어학이나 중문학과 달리 중국어교육은 하위영역이 정립되지 않아 언어 교육학적 접근을 통한 기초적인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신승희(2004)는 중국어교육이 지양할 바람직한 방향을 위한 향후 연구되어야 할 11개의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일반 언어학적 연구에서 나아가 교과과정, 교수방법, 교수내용, 교재개발, 학습능력과 습득능력 등 언어 교육학적 연구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언어 교육학적 연구에서의 발전을 3단계로 나누어 보면 1단계 교육 영역제시, 2단계 기존 연구 성과 세분화, 3단계 상하범위 제시 및 층위화이다. 이영호(2005)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교육'영역을 제시하였는데 신승희(2004)가 제시했던 연구 과제를 일부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1단계 발전을 보였다. 하지만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육목표, 교수와 학습방법, 교육심리, 교재 등이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어 활용의 제약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박용진(2005)은 2단계 발전을 보였는데 기존 연구 성과를 기초로 분류기준에 교수법과 교육사를 제시하며 교수법은 접근방법, 교수설계로 분류, 교육사는 교육정책, 교육현황, 의식조사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언어학과 언어교육과의 차이점을 제시하며 중국어교육 연구 분야가 아직 중국어학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교육에 대한 토론이 부족하다는 논의를 제시하였다. 유재원(2008)은 중국어교육 연구 영역을 대 주제, 소 주제로 제시하였다. 내용론, 습득론, 교수론, 교재론, 평가론, 도구론, 교사론, 일반론의 8가지 영역을 최상위 범주로 삼아 중국어교육의 연구 영역을 재설정 하였는데 이는 언어 교육학적 기준에 따라 상하범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3단계적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중국어교육 관련 연구들은 일반 언어학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왔기 때문에 언어 교육학적 측면으로의 보완이 요구되어 왔다. 정윤철(2012)은 이러한 미진했던 연구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중국어교육의 언어 교육학적 연구 영역에 관한 고찰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3) 중국어 교육의 회고적 연구

중국어교육의 회고적 연구는 중국어교육 관련 연구들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연구로서 기존의 연구성과 분석 및 중국어교육 연구 영역 분류에 관한 논의로서 진행되어 왔다.

신승희(2004)의 연구는 1988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17년간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이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으로 한정되어져 있어 자료적 한계가 분명하고 연구 영역 또한 19가지 영역을 제시하여 분류 영역이 비교적 포괄적이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신승희(2004)는 중국어교육 연구 영역에 관한 최초의 연구로 연구영역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박용진(2005)은 연구논문 주제(내용)를 중심으로 상·하 범주의 5가지 연구 영역을 제시함과 동시에 언어학과 언어교육과의 차이점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언어교육학적 접근방법은 기존의 회고성 연구와 차별화 된 점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학문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중국어교육의 연구 영역에 학문 분야의 하부분야(구조)를 만드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유재원(2008) 또한 중국어교육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함을 밝히며 언어교육학적 측면에서의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기존 회고적 연구들이 모두 중국어교육 연구 영역 설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한데 반해 유재원(2008)은 상하범주를 구성하고 체계성을 갖추어 기본적인 틀을 구성하여 연구영역 설정 방법에 있어 큰 시사점을 남겼다.

정윤철(2012)은 기존의 연구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어교육 연구영역의 분류체계를 제시함으로써 연구영역을 단계화한다는 점에서 분류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있다. 크게 거시적 연구와 미시적 연구로 나누고, 각각 이들을 1층위부터 3층위 체계로 구성한 것은 기존의 관련 연구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것이다.

교육학적 연구의 내용은 교수-학습법이 주요 논의점이다. 따라서 교육학적 연구가 어학의 일부분으로 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따라 중국어교육의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교수-학습법을 분류체계로 구성하여 연구 영역의 범위를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

3. 국내 중국어교육 관련연구 동향분석을 위한 기준

본 연구는 일반 언어학적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연구를 토대로 언어 교육학적 측면을 추가하여 국내 중국어교육 관련연구를 동향 분석하였다. 동향분석의 기준은 언어 교육학적 관점과 회고적 연구에서 높은 빈도로 등장하였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발행연도,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주제, 교수-학습방법의 5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박용진(2005), 정윤철(2012)의 연구를 기반으로 <표2>와 같이 분석 기준의 틀

을 구성하였다. 세부 내용에서, 발행연구의 경우 2004년까지의 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가 있으므로 본 연구는 2005년 이후의 연구들로 범위를 제한하였다. 교수법과 학습법의 경우 일반적으로 교수-학습방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김동식(1996)의 연구를 참고하고 보다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 교수법과 학습법을 분리하였다.

<표 2> 국내 중국어교육 관련 연구동향 분석을 위한 기준 구성

번호	분류 범주	하위범주	기준 구성을 위한 참고 문헌	
1	발행 연도	2005~2014년	거의 대부분의 연구동향 연구에서 발행연도를 포함	
2	연구 대상	미취학 아동	김민영(2013)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정희(2012), 손민정(2013), 이선희(2012)	
		중국어 전공자	이효영, 이은민(2011), 최은희, 박혜원(2014)	
		중국어 전공자와 비전공자	김상균(2007), 최은희(2013), 강수정(2013)	
		교양 학습자	신경선(2012), 김선아(2014)	
		비즈니스 학습자	김상균(2007), 조은경(2012), 김현철, 조은경(2012)	
		중국어 교사	정유선(2009), 이옥주, 김주현(2009), 이정희(2012)	
3	연구 방법	수준별 학습자	초급·중급·고급 김선민(2007), 김수경(2014), 고광민(2011)	
		문헌 연구	문헌고찰 박용진(2005), 이영호(2005), 정윤철(2012) 소은희, 이주연(2011)	
		양적 연구	실험설계, 설문조사 유재원(2008), 차성만(2012)	
		질적 연구	현상학, 근거이론, 담화 맹주역(2005), 이효영(2011)	
		혼합 연구	양적, 질적연구 혼합 송원찬(2011), 임승규(2014)	
4	연구 내용	제2언어 습득 및 기능	제2언어 습득 박은미, 위수광, 임춘영(2012) 제2언어 기능 박경송, 심지연(2013), 최금실, 오현주(2013)	
		평가	평가 모형 개발	백종인(2010), 정윤철(2011)
			능력평가시험	김선아(2011), 손민정(2013)
		교육 현황 및 정책	교육정책	정소영(2011), 김홍화, 강훤(2012)
			교육현황	박용진(2005), 이영호(2005), 최병학(2006)
		의식조사	맹주역(2005), 강용중(2013)	

번호	분류 범주	하위범주	기준 구성을 위한 참고 문헌
5	교수 학습 방법	교수이론 분석	나민구(2005), 윤지영(2007), 주취란(2010)
		교수전략 적용설계	정유선(2009), 고광민(2011)
		디바이스 기반 매체 활용	김정은(2009), 박정원(2011)
	학습법	콘텐츠 기반 매체 활용	한희창(2012), 박봉준(2012)
		학습전략 적용설계	임재민(2011), 이진화(2011), 이효영(2011)
		디바이스 기반 매체 활용	이승희, 이정희(2007)
		콘텐츠 기반 매체 활용	박흥수, 오소정(2009)

III. 연구 방법

1. 분석대상 및 범위

국내 중국어교육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또 등재 후보 학술지에 실린 중국어 교육관련 연구논문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 논문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학술논문 검색사이트(www.riss.kr)의 제목, 주제어, 전체(내용 전반) 키워드 검색을 통해, 1차로 총1044편이 검색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최종적으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217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등재 및 등재 후보 국내학술지의 논문 제목, 주제어에 ‘중국어 교육 연구’, ‘중국어 교육 관련 연구’, ‘중국어 교육 연구동향’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연구논문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1차 총 1044편 중 중국어로 작성된 논문 총 162건을 포함하여 논문 제목과 주제어에는 ‘중국어 교육관련 연구’를 포함하고 있으나 국문 요약(초록)과 본문 내용 검토를 통해 본 논문 주제와 무관한 내용의 연구논문 및 중복 연구논문은 제외하였다.

셋째, 국내 중국어교육 관련 연구동향 분석에 목적을 두어 연구영역 중 韓·中 언어 비교·대조 연구 중 대상이 중국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논문은 제외하였다.

넷째, 외국어교육의 학문적 영역으로 크게 ‘일반 언어학’, ‘언어 교육학’, ‘응용 언어학’ 등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반 언어학의 언어 요소 보다는 언어교육 및 교수법, 언어습득론을 포함한 언어 교육학분야와 담화분석 및 언어의 사회문화적 기능 등을 포괄하는 응용 언어학분야를 중심으로 동향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교수-학습방법의 하위영역으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매체활용 영역을 포함하였다.

2. 분석기준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국어교육 관련 연구동향 분석준거로 발행연도,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주제, 교수-학습방법의 다섯 가지 기준을 선정하였다. 분석 기준의 세부내용은 <표3>와 같다.

<표 3> 국내 중국어교육 관련 연구동향 분석을 위한 기준

번 호	분류 범주	하위범주	분석 기준의 세부내용			
1	발행 연도	2005~2014년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검색결과에 따른 연도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10년간의 기간을 포함			
2	연구 대상	연령별 학습자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중국어 전공자 중국어 전공자와 비전공자 교양 학습자 비즈니스 학습자 중국어 교사	어린이 대상의 중국어교육에 참여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간 중에 중국어를 배움 중국어 관련 전공자로서 중국어를 배움 중국어 관련 전공자와 비전공자 모두를 학습 대상으로 선정함 교양으로써 중국어를 배움 업무상 필요에 의한 중국어를 배움 중국어 관련 교육 분야의 현직교사, 원어민 교수자, 강사, 예비교사 등을 포함함		
		수준별 학습자	초급·중급·고급	기초, 초급, 중급, 고급과정 학습자		
		3	연구 방법	문헌 연구	문헌고찰	문헌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한 연구
				양적 연구	실험설계, 설문조사	변인간의 관계, 집단 간 비교, 통계적 분석,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행한 연구
				질적 연구	현상학, 근거이론, 담화	상황고찰, 비구조적 심층면담, 포커스 그룹, 사례분석, 관찰조사, 현상해석 등의 방법으로 수행한 연구
				혼합 연구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혼합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세부내용을 기준으로 정함
		4	연구 주제	제2언어 학습	제2언어 습득 제2언어 기능	어휘, 어법, 문법, 억양, 어음, 성조, 문자, 한자 등의 언어 습득 교육에 초점을 맞춘 연구 문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어법, 번역 교육 등의 언어 기능 교육에 초점을 맞춘 연구
평가	평가 모형 개발			중국어교육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체계 개발함		
	능력평가시험			평가양상, 신 HSK, 수능, 수행평가 등을 포함함		
교육 현황 및 정책	교육정책			중국어 교과과정, 중국어 교육정책 등을 다룸		
	교육현황			회고성 논문, 중국어 교육현황, 교육연구 현황, 개선방향 등을 다룸		
		의식조사	중국어 교육에 대한 태도나 방향 등을 조사함			

번호	분류 범주	하위범주	분석 기준의 세부내용	
5	교수 학습 방법	교수이론 분석	교수-학습 이론, 교수설계이론, 교수방법론 등의 이론을 분석하여 중국어교육의 시사점을 획득함	
		교수전략 적용설계	실제 중국어교육 환경과 교수자료에 적합한 교수전략을 적용 또는 설계함	
		교수법	디바이스 기반 매체 활용	온라인, 인터넷, 하이퍼미디어, E-book,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멀티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중국어교육을 시행함
			콘텐츠 기반 매체 활용	드라마, 영화, 뉴스, 신문, 더빙공연, 영상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중국어교육을 시행함
		학습법	학습전략 적용설계	실제 중국어교육 환경과 학습대상에 적합한 자기주도 학습법, Tandem학습법 등을 적용 또는 설계함
			디바이스 기반 매체 활용	온라인, 인터넷, 하이퍼미디어, e-book,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멀티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중국어학습을 수행함
콘텐츠 기반 매체 활용	드라마, 영화, 뉴스, 신문, 더빙공연, 영상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중국어학습을 수행함			

3. 연구 분석의 절차 및 해석

연구동향의 분석과정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상수 외(2005)의 '연구절차의 신뢰성 논의'를 참고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총 217편의 논문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책임연구자 3인과 교육공학 박사 2인이 분석과정에 참여하였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 본 분석 이전에 사전에 표준화된 분석표를 작성하였고 이 분석표를 사용하여 연습과 논의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217건의 논문들 중 10개의 논문을 무작위 수집하였고, 앞서 제시한 분석표 <표3>의 세부 내용에 근거하여 분석을 연습하였다. 이러한 사전 분석 이후, 해석에 문제가 되는 내용들에 대하여 확인하고 본 분석을 위한 기준을 확정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책임연구자 3인이 합의된 분석표에 맞게 각자 217편의 논문을 코딩하여 빈도 및 비율 정도를 나타내었다. 각 범주에 대해 단일빈도로 코딩하였고 결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 외 2명이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기준 및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코딩된 자료를 검토하였다.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1차적 분석은 빈도 및 백분율 분석으로 결과를 처리하였고, 각 범주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2차적 분석은 교차분석으로 결과를 처리하였다. 교차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산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결과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IV. 국내 중국어교육 관련연구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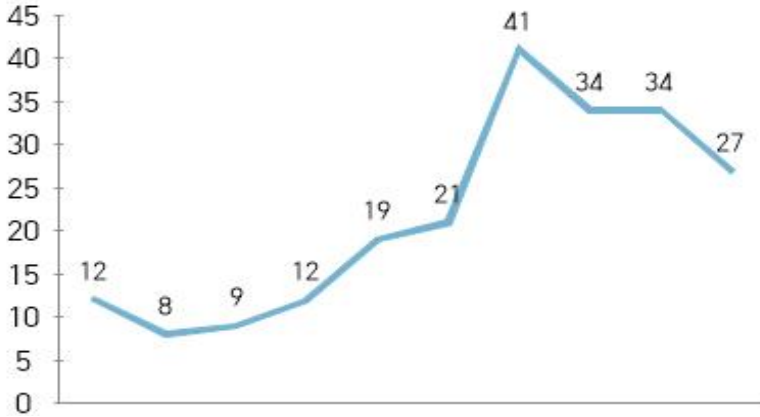
1. 발행연도에 대한 분석

1992년 한중수교 이래 양국은 경제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 무역액은 1,884억 달러에 달해, 대중국 수출은 1,168.3억 달러로 전년도 대비 34.8% 증가하고, 대중국 수입은 715.7억 달러로 전년도 대비 31.9% 증가하여, 중국은 우리의 제1위 무역대상국·수출대상국·무역흑자국이 되었다. 그리고 중국 국가여유국의 자료에 의하면, 10년 전 44만 명에 불과했던 중국인 관광객 입국자의 수가 2010년 187만 5,000명으로 무려 5배 가까이 늘어났다(차성만, 2012). 지속적인 활발한 경제 교류로 2011년 한중 교역액 2천억 달러 돌파와 2012년 한중 FTA 협상 개시 등의 양상을 나타냈으며(조참훈, 2012), 2014년 중국국가 주석 시진핑의 방한으로 한중은 2015년까지 무역액 3천억 달러 달성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한중 FTA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제통상, 산업, 해양, 과학기술 분야, 인문 분야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김홍규, 2014).

이처럼 한국과 중국의 교류가 더욱 빈번해지고 중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에서 중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아울러 중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수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연령층 역시 다양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있다(이은화, 2013).

제7차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교육부는 부전공 교사로 중국어 교사를 확충하는 조취를 취하였다. 이 시기 대학의 중국어 교육은 전대미문의 발전을 이룩하였는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에 따르면 2005년 중국어·문학 전공은 123개이었다. 2008년에는 130개, 2010년 138개까지 증가했다. 이는 중국어교육 수요가 점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반영하듯 중국어교육 관련연구 비율 또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점진적인 증가를 보이다 2010년부터 매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2011년 이후 약간의 소강상태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논문 수는 2005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이른바 '중국어 열풍'은 향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논문 수



발행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논문 수	12	8	9	12	19	21	41	34	34	27	217

[그림1] 연도별 논문 수

2. 연구대상에 대한 분석

연구대상의 연령대를 기준에 근거하여 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4>와 같다. 연구대상의 연령별 학습자는 만 19세 미만 학습자(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가 7.9%, 만 19세 이상 성인 학습자가 13.8%, 그리고 전체 연령 학습자가 76.5%의 비중을 나타내었다. 연구대상을 수준별 학습자로 분석하였을 경우에도 수준 구분이 없는 연구의 비율이 92.1%를 차지하였다. 이는 중국어교육 관련 연구들이 특정 연령이나 수준의 제한 없이 전반적인 학습자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전체 학습자 대상의 연구를 제외한 중국어교육 관련 연구들은 주로 고등학생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03년 제7차 교육과정의 개정을 기점으로 중국어가 중학교 교육과정까지 확대되고 고등학생들이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문화일보, 2007년 6월 7일), 중국어교육 관련 연구에서도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2008년 이후 대학생이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보고되었는데, 이는 대학생들이 복수전공으로 중국어를 선택하거나(김선아, 2014), 학습자 수의 증가로 인해 중국어 교사도 증가한 추세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 이후에는 교양학습자에 대한 연구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어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동시에 학습대상으로 하는 연구들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2013년과 2014년에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표 4> 연도별 연구대상 분석(1): 연령별 학습자

	만19세 미만 학습자					만19세 이상 학습자				전체 연령 학습자	전체	
	미취학 아동	초등 학생	중 학생	고등 학생	중국어 전공자	전공 자와 비전 공자	교양 학습자	비즈 니스 학습자	중국어 교사			학습 집단 2개 혼합
2005	0	0	0	0	1	0	0	0	0	0	11	12
2006	0	0	0	1	0	1	1	0	0	0	5	8
2007	0	0	0	2	0	1	0	0	0	1	5	9
2008	0	0	0	3	0	0	0	0	0	0	9	12
2009	0	0	0	1	0	0	0	0	2	0	16	19
2010	0	0	0	1	0	0	1	0	0	0	19	21
2011	0	0	1	1	3	1	1	0	0	0	34	41
2012	0	0	0	1	1	0	1	2	1	1	27	34
2013	1	1	1	1	1	3	0	0	2	2	22	34
2014	0	0	0	2	1	3	2	0	1	0	18	27
합계	1	1	2	13	7	9	6	2	6	4	166	217
(%)	(0.5)	(0.5)	(0.9)	(6.0)	(3.2)	(4.1)	(2.8)	(0.9)	(2.8)	(1.8)	(76.5)	(100)

전체 학습자 대상에 대한 연구를 제외한 연령별 학습자에 대한 각각의 연구들이 10% 전후의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학계에서는 기존의 한국중국어학회와는 별도로 ‘중국어교육학회’가 독립적으로 출범하였고 일부 대학은 부분 전공에 따라 중국어를 필수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두기도 하였으며 취업 또는 승진평가에 중국어 활용 능력을 중시하는 국내기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김선아, 2014; 조관희, 2011; 은경화, 2013),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2014년 이후의 연구동향에 양적·질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된다.

<표 5> 연도별 연구대상 분석(2): 수준별 학습자

	초급	중급	고급	수준 구분 없음	전체
2005	1	0	1	10	12
2006	1	0	0	7	8
2007	1	0	0	8	9
2008	0	0	0	12	12
2009	1	0	0	18	19
2010	3	0	0	18	21
2011	2	0	1	38	41
2012	2	0	0	32	34
2013	1	0	0	33	34
2014	2	1	0	24	27
합계	14	1	2	200	217
(%)	(6.5)	(0.5)	(0.9)	(92.1)	(100)

연구대상을 수준별 학습자로 분석한 결과, 중국어교육의 수준을 고려한 논문의 비율은 낮았다(<표5>). 이 연구들 중에서 초급 학습자에 대한 연구가 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3. 연구방법에 대한 분석

중국어교육 관련 연구들을 연구방법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표6>), 문헌연구의 비중이 47%로 가장 높았으며 양적 연구 또한 42.4%로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에 반해 질적 연구나 혼합 연구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에서 전체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으나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특정 연구방법을 언급하지 않고 중국어 관련 학자나 전문가가 자신이 생각하는 중국어교육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한 연구들은 3% 정도에 머물렀다.

<표 6> 연도별 연구방법 분석

	문헌연구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종합논의	전체
2005	6	3	2	1	0	12
2006	6	1	0	1	0	8
2007	1	6	0	1	1	9
2008	3	8	0	0	1	12
2009	9	8	1	0	1	19
2010	12	7	2	0	0	21
2011	24	13	3	1	0	41
2012	16	16	1	1	0	34
2013	18	16	0	0	0	34
2014	7	14	4	2	0	27
합계	102	92	13	7	3	217
(%)	(47)	(42.4)	(6)	(3.2)	(1.4)	(100)

본 연구의 전체 분석대상에서 양적 연구로 분류된 연구들은 주로 자료 분석, 준실험 설계, 그리고 설문 조사에 의한 연구들이었다. 이 연구들은 자료 분석, 준실험 설계, 설문 조사의 결과를 통계적으로 자료를 처리하고 해석하였다는 특징이 있었다. 특히 자료 분석은 중국어교육과 관련된 과거의 연구 결과나 현재의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이를 재구성하여 전문가적 소견으로 재해석한 후 중국어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한 연구들이었다.

중국어교육 관련 연구들에서 양적 연구의 구성을 분석 결과, 자료 분석이 4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설문 조사 31%, 준실험 설계가 23%를 차지했다. 연도별 흐름을 분석해 볼

때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양적 연구가 전체의 5%로 매우 미미한 수치였으나 2010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어 2010년에 7%, 2011년에 17%, 그리고 2013년에는 23%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그림1] 연도별 논문 수에서 2010년부터 논문 수가 급증한 것과 유의미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적 연구의 증가 중 자료 분석의 증가 폭이 비교적 컸는데, 이는 중국어교육 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연구자들이 본격적인 중국어교육 관련 연구를 위하여, 이와 관련된 과거의 연구결과나 현재의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는 데에 근거한 것으로 파악된다. 설문 조사로 이루어진 연구도 31%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7> 연구방법별 연구대상 분석(1): 연령별 학습자

	만19세 미만 학습자					만19세 이상 학습자					전체 연령 학습자	전체
	미취학 아동	초등 학생	중 학생	고등 학생	중국어 전공자	전공자와 비전공자	교양 학습자	비즈니스 학습자	중국어 교사	학습 집단 2개 혼합		
문헌 연구	1	0	2	2	3	3	1	1	2	0	87	102
양적 연구	0	1	0	10	3	4	3	1	4	4	62	92
질적 연구	0	0	0	0	1	1	0	0	0	0	11	13
혼합 연구	0	0	0	0	0	1	2	0	0	0	4	7
종합 논의	0	0	0	1	0	0	0	0	0	0	2	3
합계	1	1	2	13	7	9	6	2	6	4	166	217

연구방법과 연령별 학습자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결과표는 <표7>과 같았다. 전체 학습자를 대상으로 문헌연구나 양적연구를 수행한 연구들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들의 경우에는 양적 연구를 연구방법으로 선택한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연구방법과 수준별 학습자의 관계를 파악하였는데(<표8>), 이 분석에서도 수준구분이 없는 학습자가 연구대상인 연구들은 주로 문헌연구와 양적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준별 학습자 중에서 초급 학습자 대상의 연구는 양적연구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사례 수가 적어 통계적 분석 및 해석에 한계가 있으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방법과 수준별 학습자 간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표9>), Pearson 카이제곱 값 28.886, 유의확률 $\alpha = .004$ 로, 연구방법과 수준별 학습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8> 연구방법별 연구대상 분석(2): 수준별 학습자

	초급	중급	고급	수준 구분 없음	전체
문헌 연구	2	0	2	98	102
양적 연구	9	0	0	83	92
질적 연구	1	1	0	11	13
혼합 연구	2	0	0	5	7
종합논의	0	0	0	3	3
합계	14	1	2	200	217

<표 9> 연구방법별 수준별 학습자 간 교차분석 결과표

	값	자유도	유의확률
Pearson 카이제곱	28.886	12	.004

4. 연구주제에 대한 분석

연구주제에 대해 제2언어 습득 및 제2언어 기능, 평가, 교육현황 및 정책으로 범주를 나누어 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표10>과 같이 제2언어의 습득 및 기능이 6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교육현황 및 정책이 12.9%, 평가가 2.8%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분석 기준 이외의 주제들로 진행된 연구들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표 10> 연도별 연구주제 분석

	제2언어 학습		평가		교육현황 및 정책			기타	전체
	언어습득	언어기능	모형개발	능력평가 시험	교육정책	교육현황	의식조사		
2005	5	2	0	0	0	2	1	2	12
2006	5	1	0	0	0	1	0	1	8
2007	3	1	0	0	0	2	0	3	9
2008	9	0	0	0	0	1	0	2	12
2009	12	0	0	0	0	2	0	5	19
2010	10	4	1	1	0	1	0	4	21
2011	21	6	0	1	1	2	0	10	41
2012	16	8	0	0	1	3	0	6	34
2013	13	5	0	2	0	5	1	8	34
2014	10	3	0	1	0	5	0	8	27
합계	104	30	1	5	2	24	2	49	217
(%)	(47.9)	(13.8)	(0.5)	(2.3)	(0.9)	(11.1)	(0.9)	(22.6)	(100)

본 연구의 분석기준인 제2언어 습득은 어휘, 어법, 문법, 억양, 성조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분석결과에서 제2언어 습득 관련 연구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화 등 언어 기능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연구들(13.8%)에 비해 약 3배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어교육 관련 연구들이 언어의 기능이나 활용적인 측면보다는 어법, 문법, 어휘 등의 언어 요소에 편중되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분석 기준을 제공한 중국어교육 연구현황이 11.1%를 차지하였다.

평가에 관련한 연구 비율은 전체 2.8%로 낮지만 2009년 이후 능력평가시험에 관련한 연구가 차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앞으로 가장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연구주제이다. 한어수평고시(Hanyu Shuiping Kaoshi)는 외국인 대상 중국어 능력시험으로, 중국의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전 세계적인 중국어 학습자의 증가로 HSK 응시자 수는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3년부터 20년 동안 대학과 기업체에서 HSK를 유일한 중국어 능력평가 시험을 인정해 오고 있기 때문에(김선아, 2011), 이에 전체 응시생 중 한국 국적의 응시생이 가장 많으며 2007년 기준으로 한국 응시생은 5만6천명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회적 이슈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평가 관련 연구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학술적으로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 외의 연구들에서 교육정책(0.9%) 및 의식조사(0.9%)에 관련한 연구들이 나타났으나 그 비율은 매우 낮았다.

5. 교수-학습법에 대한 분석

중국언어학과 중국어교육학은 각각 독자적인 연구영역을 지니고 있다. 중국어교육학을 중국언어학 연구의 예측적 혹은 부차적 과제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였으나, 陆剑明(2007)은 연구범위, 연구목표, 연구중점, 기술의 방법 등 여러 면에서 확연히 구별되는 별개의 학문임을 강조하였고 맹주익(2009)도 중국어교육학은 학습자가 중국어를 배우는 것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며 중국어의 교수와 학습의 전 과정을 연구영역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교수-학습법을 분류기준으로 정하여 중국어교육 관련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교수-학습방법의 하위영역 분류는 박용진(2005)과 김동식(1996)의 연구를 참고로 하였다.

교수법은 교수이론, 교수전략, 디바이스 기반 매체 활용, 콘텐츠 기반 매체 활용으로 범주를 나누고 학습법은 학습전략, 디바이스 기반 매체 활용, 콘텐츠 기반 매체 활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표11>과 같이, 교수법·학습법 자체를 언급하지 않은 중국어교육 연구가 72.8%에 이르고 있었다. 교수법이나 학습법을 다룬 연구는 전체 분석대상의 27.2%로, 이는 국내 중국어교육의 역사 자체나 관련 연구의 성장에 비해 교수법에 대한 논의가 매우 부족하다고 파

악할 수 있다. 교수법을 다룬 연구들은 23.4%로 주로 교수이론이나 교수전략을 통하여 중국어교육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9년부터 디바이스 기반 매체 활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2009년부터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었고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스마트교육 추진전략 실행계획(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 11> 연도별 교수·학습법 분석

	교수법					학습법				교수·학습법 언급 없음	전체
	교수 이론	교수 전략	디바이스 기반 매체 활용	콘텐츠 기반 매체 활용	교수법 2개 혼합	학습 전략	디바이스 기반	콘텐츠 기반	학습법 2개 혼합		
2005	1	1	0	0	0	0	0	0	0	10	12
2006	0	0	0	0	1	0	0	0	0	7	8
2007	0	1	0	0	0	0	1	0	0	7	9
2008	0	0	0	0	0	0	0	0	0	12	12
2009	2	1	2	0	0	0	0	1	0	13	19
2010	1	1	0	1	1	0	0	0	1	16	21
2011	3	9	2	0	1	4	0	0	0	22	41
2012	1	3	0	0	3	1	0	0	0	26	34
2013	3	3	1	3	0	0	0	0	0	24	34
2014	2	2	1	1	0	0	0	0	0	21	27
합계	13	21	6	5	6	5	1	1	1	158	217
(%)	(6.0)	(9.7)	(2.7)	(2.3)	(2.7)	(2.3)	(0.5)	(0.5)	(0.5)	(72.8)	(100)

학습법을 다룬 연구의 경우는 교수법을 다룬 연구의 비율 보다 더욱 낮은 3.8%로, 중국어교육 관련 연구들이 학습자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교수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표 12> 연령별 학습자에 대한 교수법 분석

	교수이론	교수전략	디바이스 기반	콘텐츠 기반	교수법 2개 혼합	전체
미취학 아동	0	0	0	0	0	0
초등학생	0	0	0	1	0	1
중학생	0	0	0	0	0	0
고등학생	2	0	0	0	1	1
중국어 전공자	0	0	1	1	0	2
전공자와 비전공자	0	1	1	0	1	3
교양 학습자	0	1	0	1	0	2
비즈니스 학습자	0	0	0	0	0	0
중국어 교사	0	1	1	0	0	2
학습 집단 2개 혼합	0	1	0	0	0	1
전체 학습자	11	17	3	2	4	37
합계	13	21	6	5	6	51

교수법을 다룬 중국어교육 관련 연구들과 학습자 간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표12>와 <표13>과 같이 분석하였다. 우선 연령별 학습자에 대한 교수법을 분석한 결과 전체 학습자 대상의 연구에 교수법 연구가 집중되어 있었으며, 수준별 학습자에 대한 교수법에 대한 분석에서는 수준 구분이 없는 연구에 교수법 연구가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3> 수준별 학습자에 대한 교수법 분석

	교수이론	교수전략	디바이스 기반	콘텐츠 기반	교수법 2개 혼합	전체
초급	3	0	0	1	2	6
중급	0	0	0	0	0	0
고급	1	0	0	0	0	1
수준 구분 없음	9	21	6	4	4	44
합계	13	21	6	5	6	51

<표 14> 연령별 학습자에 대한 학습법 분석

	학습전략	디바이스 기반	콘텐츠 기반	학습법 2개 혼합	전체
미취학 아동	0	0	0	0	0
초등학생	0	0	0	0	0
중학생	0	0	0	0	0
고등학생	0	0	0	0	0
중국어 전공자	0	0	0	0	0
전공자와 비전공자	0	0	0	0	0
교양 학습자	0	0	0	0	0
비즈니스 학습자	0	0	0	0	0
중국어 교사	0	0	0	0	0
학습 집단 2개 혼합	0	0	0	0	0
전체 학습자	5	1	1	1	8
합계	5	1	1	1	8

학습법을 다룬 중국어교육 관련 연구들은 사례 수가 매우 적었지만 학습자 간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표14>와 <표15>과 같이 분석하였고 위에서 분석한 교수법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획득하였다. 우선 연령별 학습자에 대한 학습법을 분석한 결과 전체 학습자 대상의 연구에 학습법 연구가 집중되어 있고 수준별 학습자에 대한 학습법에 대한 분석에서는 수준 구분이 없는 연구에 학습법 연구가 집중되었다.

교수법과 학습법은 교수자나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습성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으나, 중국어교육 관련 연구들에서는 학습자의 연령, 수준,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교수법과 학습법을 다루고 있는 한계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표 15> 수준별 학습자에 대한 학습법 분석

	학습전략	디바이스 기반	콘텐츠 기반	학습법 2개 혼합	전체
초급	0	0	0	0	0
중급	0	0	0	0	0
고급	0	0	0	0	0
수준 구분 없음	5	1	1	1	8
합계	5	1	1	1	8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과거의 연구 흐름분석을 통해 과거연구의 성과와 한계점을 파악하고 향후의 중국어 교육 관련 연구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5년에서 2014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중국어교육 관련 연구 논문 217개를 선정하여 발행연도,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주제, 교수학습방법을 중심으로 동향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국내 중국어교육 관련 연구의 연도별 발행건수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점진적인 증가를 보이다가 2011년 논문 수가 급증하였다. 이후 약간의 소강상태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논문 수는 2005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어, 중국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된 것을 반영하고 있었다.

둘째, 국내 중국어교육 관련 연구의 연구대상은 연령별 분류에서는 전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비율이 76.5%이었고 수준별 분류에서는 수준 구분 없이 수행한 연구 비율이 92.1%로, 학습자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의 수가 적었다. 연구대상의 연령대를 기준에 근거하여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체 학습자 대상 연구 다음으로 만 19세 이상의 성인 학습자의 비율이 15.6%, 만 19세 미만 학습자(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비율이 7.9%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을 수준별 학습자로 분석한 경우에는 수준 구분 없이 수행한 연구의 비율 다음으로, 초급 학습자에 대한 연구가 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셋째, 국내 중국어교육 관련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47%)와 양적연구(42.4%)의 비율이 높았다. 질적연구나 혼합연구의 비율은 문헌연구나 양적연구와 비교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양적연구의 경우 자료 분석이 46%, 설문 조사 31%, 준실험 설계가 23%를 차지하였다. 연도별 흐름을 분석해 볼 때 2005부터 2008년까지는 양적 연구가 전체의 5%로 미미한 수치였으나 2010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어 2010년에 7%, 2011년에 17%, 그리고 2013년에는 23%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연구방법과 연령별 학습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학습자를 대상으로 문헌연구나 양적연구를 수행한 연구들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들의 경우에는 양적 연구를 연구방법으로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연구방법과 수준별 학습자의 관계도 분석하였는데 수준 구분이 없는 학습자가 연구대상인 연구들은 주로 문헌연구와 양적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준별 학습자 중에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초급 학습자 대상의 연구는 양적연구에 의해 도출된 것이었다.

넷째, 국내 중국어교육 관련 연구의 연구주제는 제2언어로서의 습득 및 기능에 대한 것(61.7%)이 주를 이루었다. 제2언어 습득 및 제2언어 기능, 평가, 교육현황 및 정책의 범주 내에서 연구주제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제2언어의 습득 및 기능이 61.7%, 교육현황 및 정책이 12.9%,

평가가 2.8%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2언어의 습득 및 기능에 대한 연구들은 제2언어 습득(47.9%)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제2언어 기능에 대한 연구는 13.8%의 비율에 머물고 있었다. 그리고 중국어교육 현황연구(11.1%)와 평가 관련 연구(2.3%)가 뒤를 이었다.

다섯째, 국내 중국어교육 관련 연구에서 교수학습법을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27.2%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이 비율의 대부분이 교수법에 대한 연구들(23.4%)로, 학습법에 대한 연구 비율이 매우 낮았다. 본 연구는 중국어교육학이라는 독자적인 연구영역을 인식하는 데에서 분석을 시작하였으며 교수법은 교수이론, 교수전략, 디바이스 기반 매체 활용, 콘텐츠 기반 매체 활용으로 범주를 나누고 학습법은 학습전략, 디바이스 기반 매체 활용, 콘텐츠 기반 매체 활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교수법·학습법 자체를 언급하지 않은 중국어교육 연구가 72.8%에 이르고 있었다. 교수법이나 학습법을 다룬 연구는 전체 분석대상의 27.2%로, 이는 국내 중국어교육의 역사 자체나 관련 연구의 성장에 비해 교수법에 대한 논의가 매우 부족하다고 파악할 수 있다. 교수법을 다룬 연구들은 23.4%로 주로 교수이론이나 교수전략을 통하여 중국어교육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습법을 다룬 연구의 경우는 교수법을 다룬 연구의 비율 보다 더욱 낮은 3.8%로, 중국어교육 관련 연구들이 학습자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교수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교수법과 학습자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연령의 측면에서 전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수준의 측면에서 수준 구분이 없이 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수법 관련 연구가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법과 학습자 간의 관련성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전체 연령의 학습자 대상이거나 전체 수준의 학습자 대상의 연구들에서 학습법 연구가 집중적으로 수행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2011년 6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내용에서는 우리 교육의 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특히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글로벌 역량과 공동체 의식 등을 갖춘 21세기 스마트 인재를 양성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한 방법이 SMART교육이었다. 스마트교육의 기본 취지는 자기주도적이고(Self-directed), 흥미와 관련되고(Motivated), 수준과 적성을 고려하고(Adaptive), 풍부한 자료들을 공유하며(Resource Free),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것(Technology Embedded)에 있다. 이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며 최근에는 외국어교육의 패러다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스마트 기기를 통한 외국어교육에서 학습자들이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스마트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쉽게 학습 정보를 얻으면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기도 하고 SNS를 통한 교수자나 또 다른 학습자들의 빠른 피드백으로 인해 협동 학습도 가능하게 되었다(김하현, 2007; 이희진, 2011; 조세경, 2009). 이와 더불어 중국어교육 분야에서도 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더불어 학습자의 수준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이 구현되고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풍부한 콘텐츠를 학습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증가하고 있다(김선아, 2012; 김수희, 2012; 박금룡, 2014; 조세경, 2009; 이진화, 배재석, 2010; 이희진, 2011). 특히 김선아(2012)는 시중에 나온 중국어교육 어플 98개를 조사하여 사전을 포함한 어휘 학습 관련 어플의 비중이 높음을 분석하면서, 반복학습이 절대적인 중국어의 어휘 학습에 휴대성과 접근성이 좋은 스마트 기기가 적합한 학습 도구임을 강조하였고 박금룡(2014)는 중국어교육의 스마트 기기 활용은 중국어의 상형문자를 이미지화 하는 데 유용하여 학습자의 학습방식을 더욱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중국어교육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이러한 중국어교육의 패러다임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수학습법에 대한 연구 비율이 낮았으며 이 연구들 또한 교수자 중심의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러한 교수학습법의 동향은 연구대상의 동향과도 연결되는데, 연구대상인 학습자의 연령, 수준, 상황 등의 특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학습자 전반에 대해 논의한 연구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연구방법에서도 문헌이나 자료 중심의 분석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분석의 결과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중국어교육일 수록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사 중심의 수업 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교수설계에 투자해야 한다는 김수희(2012)의 연구결과와도 상반되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외국어교육 고등기관인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는 2016학년도에 중국어교육과를 신설하고 수시모집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중국어교육의 수요가 증가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서, 이 학과의 신입생들이 졸업 후 중국어교육 전문가로서 진출할 경우 경쟁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어교육학회 설립과 더불어 중국어교육과의 신설은 중국어교육의 연구영역에도 새로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어중문과에서 교직을 이수하여 중국어교육을 실시해오던 때와 차별되고 중국어교육만의 학문으로서 완전한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연구 동향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교육 패러다임, 특히 스마트교육의 기본 취지를 중국어교육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습자들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자료와 정보통신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노력들이 중국어교육의 새로운 연구 동향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동식(1996). 한국교육공학 연구 동향 분석. **교육공학연구**, 12(1), 173-193.
- 김상균, 신동윤(2011). 중국어 교육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소고. **중국학논총**, 32, 291-310.
- 김선아(2011). 新HSK와 출력(output) 위주 중국어 지도방안 고찰. **아시아문화연구**, 23, 27-55.
- 김선아(2012). 중국어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의 현황과 분석. **인문논총**, 30, 317-334.
- 김선아(2014). 대학교양 중국어 활성화를 위한 제요건. **인문학연구**, 47, 151-179.
- 김수희(2012). 스마트 교육에서의 중국어 교수·학습 모형 연구.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김하현(2007). u-러닝 환경에서의 중국어 교수·학습 모형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홍규(2014). 중국국가 주석 시진핑의 2014년 방한과 한중관계. **전략연구**, 64, 63-89.
- 맹주억(2007). 한국 중국어교육의 환경변화와 지향점. **중국언어연구**, 25, 385-414.
- 맹주억(2009). 중국어교육학의 학문체계 정립에 대하여. **중국연구**, 45, 47-61.
- 박금룡(2014). 에듀테인먼트 기반 기초 중국어 스마트 러닝 시스템. 박사학위 논문, 제주대학교.
- 박용진(2005). 국내 중국어교육 관련 연구 논문에 대한 분석. **중국문학**, 43, 303-321.
- 소은희, 이주연(2010). 개화기에서 1910년대까지의 중국어 교육상황 고찰. **중국문화연구**, 18, 249-268.
- 손성옥(2003). 외국어 교육학에서의 학문 영역과 교과 과정 구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8, 1-36.
- 신승희(2004). 교육대학원의 중국어교육 연구현황과 과제. **중국언어연구**, 19, 465-490.
- 유재원(2007). 국내 교육대학원의 중국어교육 연구 논문에 관한 고찰. **외국어교육연구**, 21(2), 85-106.
- 유재원(2008). 중국어교육의 연구 영역 설정에 관한 고찰. **중국언어연구**, 26, 239-267.
- 은경화(2013). 구미지역 기업체의 중국어 교육 현황과 발전방향. 박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 이상수, 강정찬, 이인자, 황주연, 이유나(2005). 웹기반 교육의 최근 연구동향에 대한 비판적 분석. **교육공학연구**, 21(4), 229-254.
- 이영호(2005). 中國語教育의 研究現況과 方向. **중국어문논역총간**, 15, 297-335.
- 이옥주(2008). 중국어교수자의 멀티미디어 교수매체에 대한 인식과 활용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27, 247-297.
- 이옥주, 정소영(2008).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의 학습효과에 대한 실험적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52, 217-241.
- 이은화(2013). “방과후학교” 중국어 수업에 대한 교육 수요자의 인식 분석. **중국언어연구**, 48,

219-249.

이진화, 배재석(2010). 기초중국어 자기주도적 학습방법 연구. **중국어교육과 연구**, 12, 165-181.
이희진(2011). 스마트폰 기반 중국어 교육어플리케이션 기획 및 제작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임동석(2003). 韓國에서의 漢子 敎育과 中國語(漢語) 敎育. **중국언어연구**, 17, 5-27.

전궁(2011). 以汉语敎育为中心, 观韩国内汉风之现状.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집**, 34, 311-328.

정윤철(2012). 중국어교육의 연구영역 분류. **중국학**, 41, 1-22.

조관희(2009). 한국의 중국어 교육에 대한 반성적 고찰. **중국어문학논집**, 57, 233-252.

조세경(2009). 스마트폰을 활용한 외국어 학습. **멀티미디어 언어교육**, 12(3), 211-228.

조참훈(2012). 한중 교류의 저변화(底邊化) 방안 연구: '중국어자원봉사회'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중국인문과학**, 51, 569-592.

조항근(2011). 중국어교육에서의 멀티미디어 교수 매체 활용 방안. **중국어문학논집**, 67, 247-273.

차성만(2012). 한국에서의 중국 언어·문화 교육의 현황. **한중인문학연구**, 35, 65-108.

한희창(2012). 영화를 활용한 중국어 교과의 수업 설계. **중어중문학**, 51, 361-383.

陆剑明(2007). 汉语作为第二语言教学的本体研究和汉语本体研究. **世界汉语教学**.

우정렬 (2007, 6, 7). 제2외국어 교원수급 부실.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7060701033435123002> 에서 검색

* 논문접수 2015년 8월 10일 / 1차 심사 2015년 9월 7일 / 2차 심사 2015년 9월 16일 / 게재승인 2015년 9월 17일

* 이현아: 부산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 교수체 재전공 석사과정을 이수하였으며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서 시간강사로 근무 중이다.

* E-mail: hrdplanner@nate.com

* 김민채: 중국 천진대학교 한어언문학과를 졸업하였고 현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공학전공에 재학 중이다.

* E-mail: jingzhen01@naver.com

* 김영환: 부산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였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인디애나주립대학교 교수체제설계전공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00l@alcob.org

Abstract

Research Trend Analysis on Chinese Education in Korea from 2005 to 2014

Lee, HyunAh*

Kim, MinChae**

Kim, YoungHwa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 of Chinese education in Korea so that we can make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To achieve this purpose, we selected 217 articles from 2005 to 2014 focusing on Chinese education and analyzed them by the publishing year, objectives, targets, methodology, content and teaching-learning methods with ICT. The key outcomes are follows:

First, the total number of articles in 2014 increased almost more than double compared to the number in 2005 while reflecting the rapid increment of interest on Chinese education. Second, on the target audience, most of the research that was done focused on adult learners, which is composed of Chinese majors, teachers and businessmen. On the level of learning, most of the research was done on the basic level. Third, on the methodology, majority of research was one by literature review and quantitative study. Fourth, on the content, most of the studies focused on language acquisition rather than language function, evaluation and history. Fifth, on the educational method, the majority of activity was on design theory and strategies. Mean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attention paid to learning and media utiliza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Chinese education, it is necessarily to pay more attention to divergent teaching and learning methodology utilizing educational technology and media. While elaborating Chinese education with those, it will be possible to make a stepping stone to utilize SMART system.

Key words: Chinese education, Chinese education research, Research trend analysis

* First author: adjunct instructor, Pusan national university

** Graduate student, Pusan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Pusan national university